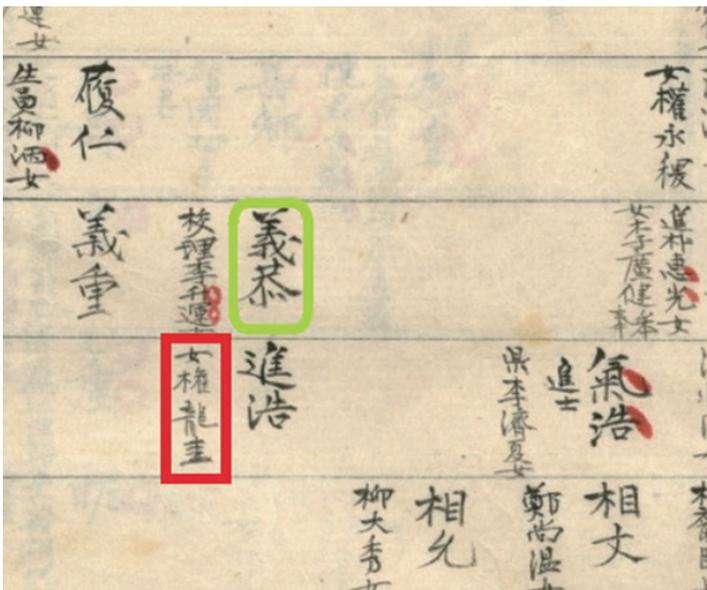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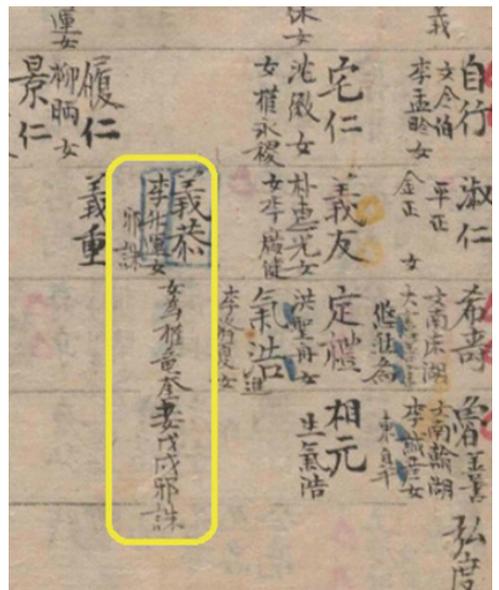
김익례·김면호의 누이, 순교 사실과 남편 이름이 족보 기록에서 확인되다

1866년 순교자 ‘하느님의 중’ 김면호 토마스의 가족은 1839~1868년까지 3대에 걸쳐 10명의 순교자(김면호 포함)를 배출했습니다. 김면호의 형인 김익례 안토니오와 김응례, 모친인 이희연 가타리나(이상 1839년 순교자), 김면호의 형인 김 베드로와 그 가족(아들 부부와 형수, 김 베드로의 누나(이상 1868년), 김면호의 큰아들(연도 모름)이 그들입니다. 필자는 교회 측 자료와 관변 측 자료, 족보 자료 등을 종합하여 순교자 김면호 가족의 행적과 가계도를 정리했고, 그 내용을 2020년 6월 『교회사연구』 56집[‘1839~1868년 3대 순교자 김익례·김면호 가족의 행적과 가계도’]에 실었습니다.

위의 논문을 쓸 당시 필자는 남인 당파에 속한 집안의 족보들을 수합·편집한 『남보(南譜)』 1~2(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1984)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김면호 가족이 속한 안동김씨의 족보 자료와 다른 판본의 남보(南譜) 자료들을 더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족보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된 사실(김면호의 누나와 그 남편을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1] 김익공의 아내와 딸, 사위 권용규
(『남보』 2권, 안동김씨) [성균관대 한국족보자료시스템]



[그림2] 김익공의 아내와 딸, 사위 권용규
(『백가보』 天, 안동김씨) [국립중앙도서관]

김익례·김면호의 가족은 영평(현재 경기 포천 지역)을 세거지로 한 ‘구(舊) 안동김씨’ 가문으로 남인 당파에 속했으며, 김의공(金義恭)과 연안 이씨 이희연(李姬燕) 사이에 5남 1녀(김익례, 김영례, 김응례, 딸, 김 베드로, 김면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중 유일한 여자 형제는 이름도 세례명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간략한 행적과 순교 사실이 『병인지명사적』(17권 4~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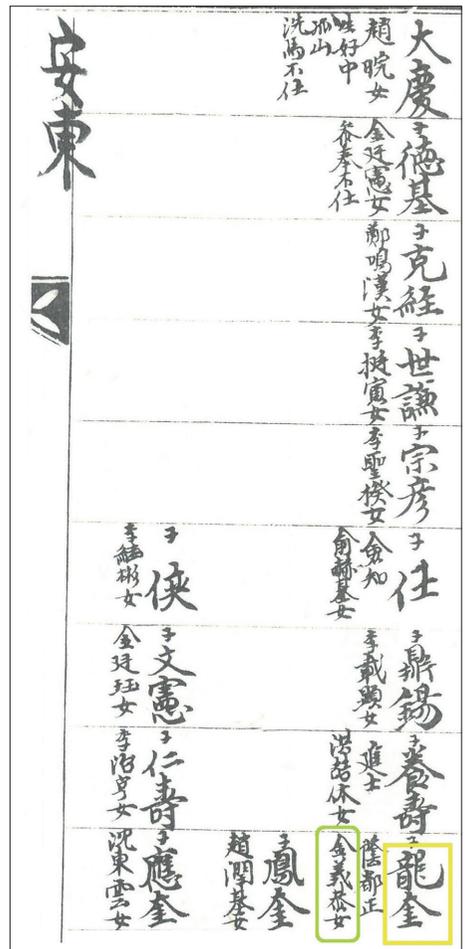
김익례·김면호의 누이는 1839년 이전에 비신자인 권 진사의 맏며느리가 되어 출가했습니다. 친정에서 같이 시집에 온 여중 점이와 함께 신앙생활에 충실했으며, 1년에 한 번 다른 지방에 가서 성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1868년(무진) 천주교 박해 때 여중 점이와 함께 충주 옥에 잡혀가 순교했습니다.

2020년에 필자가 확인했던 『남보』 2 ‘안동김씨 계보’[1118쪽]에는 김익례 형제의 부친인 김의공과 그 아내[이승운의 딸]만 나오고 그 자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입수한 안동김씨 족보들[1825년 을유보, 1858년 무오보, 1902년 임인보, 1935년 을해보]에는 김익례 형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이름은 빠져있기도 합니다. 예전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신 女+○○○[딸+사위의 이름], ○○○+女[장인 이름+부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익례의 누이(즉, 남편의 이름은 대부분 족보에서 빠져있고, 1935년 을해보에는 그 남편이 권철신(權哲身)이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권철신(1736~1801)의 부인은 의령 남씨이다]

천주교가 탄압 받던 시기에 작성된 가문의 족보에는 ‘사학(邪學) 죄인’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 가문의 족보를 수합한 남보 같은 족보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안동김씨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은 김익례의 누이와 그 남편이 『남보』(성균관대 한국족보자료시스템 제공)[그림1]와 『백가보(百家譜)』(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 제공)[그림2]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보』(성균관대) 2권 108쪽과 『백가보』 천(天)권 98쪽에 의하면, 김의공의 사위 이름이 권용규(權龍奎)로 나옵니다. 『병인지명사적』에 언급된 ‘권 진사의 맏아들’이 바로 권용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권용규’가 안동권씨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족보 자료[그림3]를 찾았는데, 『남보』 1 ‘안동권씨 계보’[587쪽]에서 ‘권용규, (부인) 김의공의 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용규의 부친인 권양수(權養壽)가 『병인지명사적』에 언급된 ‘권 진사’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래의 안동권씨 족보인 『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 12권(2004, 319쪽)에는 권용규(1811~1882)의 부인으로 김의공의 딸이 아니라 윤만규(尹萬圭)의 딸이 나옵니다. 사학죄인인 김씨 부인의 기록을 지우고 재혼한 윤씨 부인의 기록만 남긴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남보』(성균관대 소장과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간행)와 『백가보』 족보를 통해 김익례



[그림3] 권용규, 김의공의 사위
 (『남보』 1, 안동권씨) [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의 누이가 안동권씨 권양수의 아들 권용규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백가보』의 기록을 통해 김의공의 아내[김익례 형제의 모친, 이희연 가타리나]와 김의공의 딸[권용규의 아내]이 천주교 신자로 순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의공, (아내) 이승운의 딸 - 사학죄인으로 죽임당함’[義恭 李升運女 邪誅]과 ‘(김)의공의 딸이 권용규의 아내가 되었는데 무술(년)에 사학죄인으로 죽임당함’[女爲權龍奎妻 戊戌邪誅]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술년(1838)은 무진년(1868)의 오류로 보입니다.

남성 가계를 중심으로 혼인 관계[부인-장인, 딸-사위를 포함한 족보 기록에서 남성 천주교 신자가 확인되는 경우(‘사학죄인’)가 종종 있지만 부인과 딸로서 표시되는 여성이 사학죄인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의 김익례·김면호의 누이와 그 모친이 순교했다는 사실이 족보 기록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족보를 비롯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발굴하면서 새로 확인되는 사실은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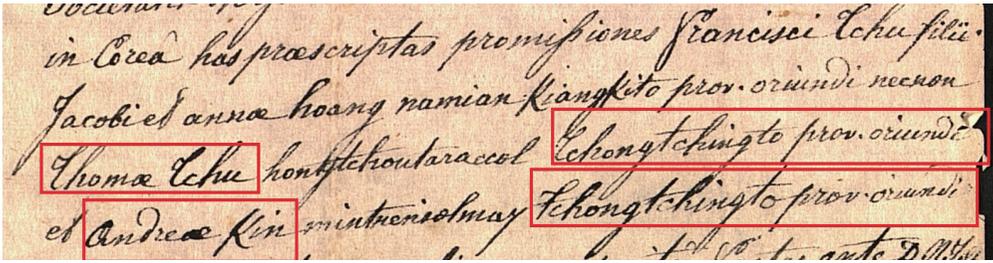
모방 신부의 라틴어 서한 : 신학생 서약서(3)

지난 호에 이어서, 기해박해 순교성인 모방 신부가 작성한 1835년 12월 2일자 서한(A-MEP Vol.1260 f.99, 연구소 정리번호 30번)의 기존 편집본들의 성과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2) 지정환·최승룡(2006), 『Monsieur Maubant Lettres de 1832 à 1839』, 84쪽.

지정환·최승룡 편집본(2006)은 모방 신부 문서인 A-MEP Vol.1260 전체를 판독·수록한 자료집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집본(1996)이 출판된 지 10년 뒤에 나왔으며, 연구기관에만 배포되었습니다. 라틴어 판독은 최승룡 신부가 담당했는데, 원문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다. ‘신학생 서약서’의 경우에 한국교회사연구소(1996)와 비교해보면, 누락되었던 서한 수신인, 문서정리자 2명이 쓴 발신 연도 및 일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보이며 표기 방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류는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내용, 즉 ‘그리고 김 안드레아, 충청도 면천 솔피 출신(et Andreae Kin Mintsiensoimay Tchongtchingto prov. oriundi)’이라고 쓴 한 줄이 통째로 빠진 것입니다. 이 편집본에 따르면 서약을 한 신학생은 최방제와 최양업 두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작은 실수는 아닙니다. 편집자가 이러한 실수를 한 이유는 바로 윗줄에 적힌 최양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충청도 출신(Tchongtchingto prov. oriundi)’이라는 구절이 똑같이 쓰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충청도 홍주 다락골 마을 출신 최 토마스(Thomae Tchu Hongtchou Taraccol Tchongtchingto prov. oriundi)’가 한 줄에 쓰여있고, 바로 아래에 김대건에 관해 한 줄이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신학생 서약서’ 중 신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
최양업과 김대건 모두 ‘충청도 출신(Tchongtchingto prov. oriundi)’이라고 쓰여 있다.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이 두 곳 더 있는데. ①수신인 ‘조선 신학교 장상’ 아래에 쓰인 ‘...에 계신(à....)’이 빠졌고, ②모방 신부가 두 번 연속으로 쓴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앞에 쓴 구절(D. N. J. Ch.)이 한국교회사연구소(1996)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락되고 대신 원문에 없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②의 경우, 복사본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밑줄로 대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밑줄보다는 자료집의 서문에 언급된 편집 원칙에 따라서 대략의 글자수대로 별 표시(*)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독자가 모방 신부가 밑줄을 그은 것으로 오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독 자체의 오류는 한 곳에서 보입니다. 서한의 위쪽 여백에 문서정리자가 덧붙여 쓴 발신일 ‘2일’이 ‘9일’로 판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독의 오류보다도 표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여백에 쓰여진 발신 연도 ‘1836년’과 일자 ‘12월 2일’은 모방 신부의 서체가 아니며 각각 다른 서체로 쓰여 있는데, 편집자는 서로 다르게 표기하지도 않고, 마치 모방 신부가 쓴 것처럼 본문과 같은 서체로 표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원문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독자는 모방 신부가 ‘1836년 12월 9일’을 썼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방 신부가 본문에 쓴 일자는 ‘1836년 12월 2일’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므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날짜를 적었는지 해명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표기의 문제이지만, 편집이 섬세하지 못하면 이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소식과 공지

■ 천주교서적 고서(古書) 입수 (양동성당 구교우의 기증)

- 양평 양동성당 삼산구역 이기광 다탈대오 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천주교서적 14책을 본당(주임 임유탉 신부)을 통해 본 연구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1880년대 일본 나가사키 성서활판소에서 인쇄된 희귀본 서적들과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쓴 필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선조의 숨결이 담긴 귀중한 유산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님과 책을 보내주신 임유탉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